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행정력 집중

전주시, 시민 안전 최우선 재난·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전주시는 올 한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까지 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 담당 시설물 538개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시정 가능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시기별·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기간’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기별·계절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재해예방 시설, 화재 취약 시



전주시는 올 한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재난 안전상황실

설 등을 중점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명절 전에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전선과 소방시설을 중점 확인하는 등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귀성객의 교통안전에 위한 점검도 이뤄진다.

또한 시는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와 옹벽 등 붕괴 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시는 여름철 하천과 저수지 등 재해 예방 시설 작동 상태 및 침수 우려 지역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문화 행사와 축제가 펼쳐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야영장과 문화재 등 화재 취약 시설을 중점 점검기로 했다. 겨울철에는 전통시장과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재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전통시장과 요양시설,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 및 보수 조치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건설안전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코튼클럽㈜, ㈜씨앤씨어패럴(대표이사 이운영)은 지난 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추동의류 1839점(58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따뜻한 온기 전달 되길”

전주 코튼클럽·씨앤씨어패럴, 5800만원 상당 추동의류 기탁

전주 코튼클럽㈜, ㈜씨앤씨어패럴(대표이사 이운영)은 지난 3일 전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추동의류 1839점(58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운영 코튼클럽㈜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전주 코튼클럽(주)에 감사드린다”면서 “후원해주신 물품은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코튼클럽㈜, ㈜씨앤씨어패럴은 덕진구 팔복동 소재 언더웨어, 이지웨어 등 생산 제조업체로 매년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올바른 손 씻기·기침 예절 실천·예방접종 등 당부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전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38°C 이상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겪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설

제로 지난해 52주차(12월 22일~28일)의 경우 의사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73.9명으로 전주(12월 15일~21일)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와 19~49세(93.6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인플루엔자는 △고열(38~40°C)과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두통과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증상을 보인다.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과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은 합병증 발생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돼 입



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적절한 진료와 검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미르밀육류관 인후점, 중식 봉사

전주시 덕진구 미르밀육류관 인후점 손춘식 점장과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단장 임현)은 6일, 새해를 맞아 관내 어르신 100여 명을 초대해 갈비탕과 다과(떡, 밀감 등)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미르밀육류관 인후점 손춘식 점장의 주인을 위한 마음과 좋은 일에 함께했었다는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의 동참으로 매년 새해맞이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오고 있다.



식사를 하러 오신 어르신들은 “갈비탕 한 그릇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

해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거 같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손춘식 미르밀육류관 인후점 점장, 임현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 모두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원 3명에 표창 수여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2024년도 하반기 구급대원으로 선발된 아람119안전센터 이주석 소방장, 최성만 소방장, 김동영 금암119안전센터 소방사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구급대원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119리본 구급대’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생명 소생과 전문처치 활성화에 기여한 구급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 응급처치와 역량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선정된 구급대원들은 출동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장 구급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진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